

수출역량강화사업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효과연구: 경기지역 창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인성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박우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1,690개 기업의 수출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수출, 창업, 수출지원사업, 중소기업

1. 서론

2014년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1.7% (수출의존도 47.1%, 수입의존도 44.1%)로,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8%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는 2009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21.1%에 해당하였지만, 그 이후로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치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인 수출 10만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500만 달러 이상 수출업체 중 평균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이상인 '글로벌 강소기업' 비중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1개품목, 1개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각각 44%, 55%에 달하여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도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은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반면 안전 지향적인 모기업 국내 납품 (수급)에 주로 의존하여 수출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참여율과 수출지향율도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24.8%, 스웨덴 29.7%, 캐나다 32.4%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총 판매액 대비 수출비중으로 본 글로벌 지향성도 1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 7.1%, EU 8.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글로벌 지향성이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절대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하나로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수출지원제도가 갖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제도가 얼마나 개별기업의 수출성과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high7647@nate.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조교수, hawkmaint@yonsei.ac.kr

· 투고일: 2016-07-29 · 수정일: 2016-10-21 · 게재확정일: 2016-10-28

그러나 무역정책의 특성상 일반적인 정책과는 달리 정의가 복잡적이고 측정도 쉽지 않다는 한계성 때문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 ‘사업’)이 사업 참여기업들의 수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업 참여기업들의 업력별로 창업기업과 계속사업기업간 어느 집단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중소기업 수출과 이와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의 시행기관별 분류

구분		KOTRA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종합지원		지사화사업			
마케팅 지원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국내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홍보지원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국내전시회	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국내전시회
	업무대행 및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세일즈 출장지원 현지애칭상표	수출컨설팅지원 외국어매뉴얼 미국시장조사 중소기업시랑방 해외지원센터	중국기업신조사 중국상표등록대행	무역투자 지원센터
인프라 지원	온라인	BuyKorea 사이버마트	인터넷 중소기업관 아세안네트워크	KITA.ORG	
	오프라인	무역전시관 공동물류센터	수출인큐베이터	무역전시관	해외전시 판매장
기타	정보자료	설명회세미나 e-KOTRA	설명회, 세미나 국제조달사이트	설명회, 세미나 KITA.NET	설명회세미나
	인적자원	아카데미		무역아카데미 청년무역인력양성 GTEP	

II. 기존문헌 연구

2.1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이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 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들은 세부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사가 지원받을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첫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교육, 통·번역, 시장조사, 국제사업자번호 발급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활동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다른 수출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민간은행 등에 마케팅, 무역보험, 신용상품우대 등을 지원한다.

직전년도 수출실적의 평가방법은, 직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무역협회, 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간접수출의 경우 은행 및 K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C), 구매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제·지방제를 체납중인 기업,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기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병·의원의 업종은 제외한다.

그리고 수출역량강화사업 초보단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가 불가하며, 사업신청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수출연계 기술사업화 사업 신청기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참여제한 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분된다).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사업신청서부터 완료보고까지 상당히 많은 서류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참여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칫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2.2 선행연구조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제도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마케팅 활동 지원과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능 측면에서 해외지사화 사업, 시장개척단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해외홍보지원 및 해외시장조사 등으로 분류됨을 <표 1>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문희철·오현정(2009)는 수출지원 제도 관련 인지도가 높을수

록 활용도가 높으며, 활용도는 전략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수출발전 단계에 맞는 정책적 목표의 설정 및 맞춤형 지원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인권(2010)은 수출경쟁력과 무역지원체도의 활용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출경쟁력은 무역지원제도 활용도와 유의한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신현우(2010)은 기업규모, 기업연령에 관계없이 확일적으로 지원체도가 활용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중점적 지원대상인 소규모, 신생기업에게 현행 지원체도가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연성(2008)는 국제적인 신벤처기업에 대해서 경영자의 개인적 요인에서는 경영자의 국제화비전이 수출집약도와 수출수익성에, 위험감수성향이 수출집약도에 영향을 있으며, 기업의 요인 중에서는 기술역량이 수출집약도와 수출수익성에, 그리고 학습지향성이 수출집약도와 수출성장성 및 수출수익성에 영향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성봉(2007)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에 대한 필요와 지원 간 차이가 수출국가 수, 수출경험 등의 변수에서는 존재함을 밝혔으나, 기업의 규모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김영일(2007)은 수출지원체도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대치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향후 맞춤형 지원제도 구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edia & Chokar(1986), Moini(1988), Rondinelli & Burpitt(2000)는 지원체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또한 기업의 수출 참여유도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2.3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기업의 특성과 수출지원제도 전반에 관한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출역량강화사업이라는 특정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수출성장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둘째, 수출역량강화사업의 효율성을 참여기업의 입력 (사업자 등록일 기준 7년)을 기준으로 창업기업과 성숙기업으로 구분하여 어느 집단에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수출지원사업의 유형과 관련해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체의 업력별, 규모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지원내용을 비교한(유세준, 2010) 바 있으나, 각 지원 사업이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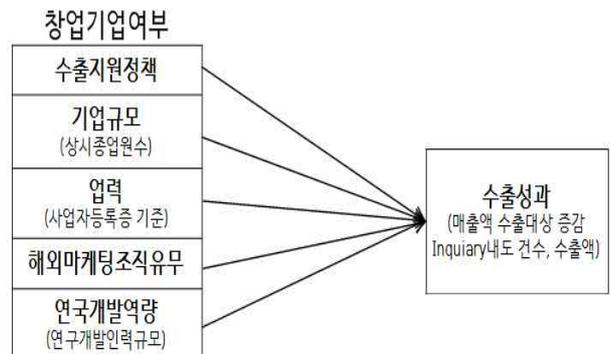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기업의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해 주는 것을 주된 역할로 하고, 수출중소기업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수출관련 유·무형의 경영자원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개별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는 창업기업과 성숙기업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다.

비교적 수출경험이 많고 보유 자원이 풍부한 기업의 경우 수출절차나 바이어 발굴 노하우보다는 추가 시장개척을 위해 실질적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사업 참여의 주목적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수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업들은 준비 없이 신규 바이어를 소개받아도 거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이는 수출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비효율로 이어진다. 따라서 수출경험이 적은 기업들은 수출준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설립연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태생적 글로벌 (Born Global)기업은 높은 기술력에 비해 자금력을 비롯한 주요 경영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실행 과정에서 경영자원을 보완해 주는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가설 1: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2: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가설 3: 수출역량강화사업은 계속사업중인 중소기업보다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IV. 데이터 및 변수

4.1 연구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기업은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표본으로 하였다. 경기지역은 2000년 이후 수출·입 관련 통계에 있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표 3>에서보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년도인 2014년과 2015년도에도 전국대비 수출 비율 약 19%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산업별 고용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연구 표본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의 가장 큰 기조는 자유무역협정 (FTA)이며, 이는 경제 통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로 설명된다. 그중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것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무역창출효과 (Trade Creating Effect)란, 관세동맹 결성으로 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종래 관세 보호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상품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역내 타국의 값싼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무역이 새로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그리고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ting Effect)란,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의 값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국 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한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 무역전환효과가 커야한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로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가리킨다. 한편 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 라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역내국 간의 관세 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산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에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고 협정에 대한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 시점인 2014년도부터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5>참조).

4.2 기술적 결과통계

<표 2>DATA 기술통계

(N=1,680)

변수	평균값	제1 사분위수	중위수	제3 사분위수	표준편차
policy	0.500	0.000	0.500	1.000	0.500
start	0.411	0.000	0.000	1.000	0.492
ln_sales	7.293	6.603	7.910	8.795	2.412
ln_num_Export_nation	1.760	1.099	1.792	2.398	1.022
ln_inquiry	2.970	1.792	3.045	3.932	1.655
ln_export	4.897	2.970	5.615	7.183	2.883
ln_num_employ	2.886	2.197	2.890	3.611	0.979
ln_age	2.165	1.609	2.303	2.708	0.835
ln_num_mkt	1.021	0.693	1.099	1.386	0.420
ln_num_RD	1.559	1.099	1.386	1.946	0.716

4.3 변수의 정의

연구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성과 중 하나인 수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크게 종속변수, 검증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로 구분된다.

4.3.1 종속변수

기업의 성과측정에 있어서 ROI, 영업이익, 성장성, 수출집약도, 영업이익, 시자점유율 등의 객관적 지표가 있으나 창업기업의 특성상 객관적 지표의 확보가 어렵고, 회계기준 또는 목표시장의 크기에 따라 절대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성장단계마다 지배적인 문제가 다르므로 성과평가를 위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종속변수는 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4.3.1.1 재무적 수출성과

수출관련 성과측정을 위하여 매출액(정헌배, 2015, 신진오·하규수, 2016)과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매출액(ln_sales)과 수출액(ln_export)의 경우 정규성을 위해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15).

4.3.1.2 질적 수출성과

재무적 수출성장을 보완하는 기업의 질적인 수출성과는 수출상대국가의 수, Inquiry내도건수로 측정하였다. 수출상대국가의 수(ln_num_Export_nation), Inquiry내도건수(ln_inquiry)도 정규성을 위해서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4.3.2 검증변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비롯해 금융, 판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수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수출지원정책과 창업기업여부를 검증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4.3.2.1 수출지원정책

수출지원정책의 수혜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출지원정책을 받으면 policy=1, 그렇지 않으면 policy=0로 하여 측정하였다.

4.3.2.2 창업기업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립한지 7년 이하인 창업기업이면 start=1, 계속기업이면 start=0으로 하여 창업기업여부를 측정하였다.

4.3.3 통제변수

기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수출지원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4.3.3.1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기업의 글로벌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제화단계모델에 따르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업일수록 해외시장에서 그만큼 조직의 자원을 많이 투입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가 쉬울 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하며, 성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두어 기업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며, 측정치는 상시 종업원수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종업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값(ln_num_employ)으로 측정하였다.

4.3.3.2 업력

기업의 업력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기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력을 통

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업력 또한 분석을 위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ln_age)을 사용한다.

4.3.3.3 해외마케팅조직유무

해외마케팅조직의 유무는 기업의 성과와 수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통제변수로 활용하고, 상시종업 중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의 고용인원으로 측정한다.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수 또한 자연로그를 취한값(ln_num_mkt)으로 분석한다.

4.3.3.4 연구개발역량

해외시장 진출기업의 기술력이 현지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혁신적으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고(Knight & Cavusgil, 2004)기술 혁신이 해외시장 진출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혁신에 대한 측정 대응치로서 연구개발 전담 인력수를 연구개발역량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연구개발전담인력수 또한 자연로그를 (ln_num_RD) 취한 값으로 분석하였다.

<표 3>광역자치단체별 수출입현황

순번	지역명	2014년			2015년		
		수출액	수입액	수지	수출액	수입액	수지
	총계	572,664,607	525,514,506	47,150,101	526,756,503	436,498,973	90,257,531
1	경기	111,641,042	104,821,449	6,819,593	105,907,816	102,717,902	3,189,914
2	울산	92,400,410	79,739,272	12,661,137	60,273,488	140,667,826	-80,394,338
3	충남	65,112,462	33,104,446	32,008,016	72,907,063	32,456,706	40,450,357
4	서울	62,329,311	140,472,535	-78,143,224	67,123,481	23,168,215	43,955,266
5	경북	51,142,433	26,812,086	24,330,347	47,020,417	21,027,569	25,992,848
6	경남	51,476,345	16,057,397	35,418,948	43,458,454	12,503,429	30,955,025
7	전남	30,002,762	40,351,870	-10,349,108	31,197,699	35,436,597	-4,238,898
8	인천	39,111,996	41,786,142	-2,674,147	30,494,345	26,703,518	3,790,828
9	광주	14,702,010	14,894,016	-192,006	15,209,839	5,505,832	9,704,007
10	부산	16,258,384	5,167,491	11,090,893	15,578,684	14,377,273	1,201,411
11	충북	14,195,914	6,177,525	8,018,388	15,304,600	5,551,980	9,752,619
12	전북	8,556,406	4,552,404	4,004,001	7,952,249	4,281,342	3,670,908
13	대구	7,807,123	3,681,189	4,125,934	7,090,442	3,876,930	3,213,512
14	대전	4,731,529	3,557,912	1,173,618	4,306,950	3,623,953	682,997
15	강원	2,069,748	2,863,198	-793,450	1,881,290	3,152,194	-1,270,904
16	세종	1,020,318	1,150,015	-129,697	928,618	1,108,293	-179,675
17	제주	106,415	325,533	-219,119	121,068	339,390	-218,321
18	기타	0	25	0	0	24	0

<표 4>지역별 산업별 고용인원

수록기간:반기20131/2-20151/2 / 문의처 : 042-481-2271

시도	취업자 (천명)									
	계	C	D	G	H	J	K	M	N	O
계	25,900	4,455	95	3,775	1,415	770	784	1,009	1,246	956
경기	6,367	1,285	15	855	372	240	174	312	332	164
서울	5,102	498	12	978	245	310	217	364	291	160
경남	1,660	450	7	208	100	21	43	31	48	77
부산	1,656	293	10	250	139	32	59	39	93	53
인천	1,484	325	5	234	103	37	47	43	102	43
경북	1,429	279	10	164	72	16	31	19	37	63
대구	1,226	240	3	229	61	25	34	32	52	44
충남	1,200	258	8	118	52	13	27	24	57	48
전남	921	92	3	106	46	5	23	12	26	61
전북	900	115	2	104	37	8	21	15	23	56

충북	831	167	2	101	40	8	23	18	31	34
대전	775	78	3	113	40	19	20	50	50	37
강원	740	50	6	85	30	12	19	13	33	55
광주	731	108	5	124	34	13	26	20	28	35
울산	558	205	3	62	24	4	11	12	34	14
제주	321	13	2	44	20	6	9	6	13	14

주: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표 5>우리나라의 국가별 교역량 현황

순번	국가명	2014년 (단위 : 천불)			2015년 (단위 : 천불)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총계	572,664,607	525,514,506	47,150,101	526,756,503	436,498,973	90,257,530
1	중국	145,287,701	90,082,226	55,205,475	137,123,934	90,250,275	46,873,659
2	미국	70,284,872	45,283,254	25,001,618	69,832,103	44,024,430	25,807,673
3	홍콩	27,256,402	1,749,889	25,506,513	30,418,178	1,493,026	28,925,152
4	베트남	22,351,690	7,990,325	14,361,365	27,770,750	9,804,831	17,965,919
5	일본	32,183,788	53,768,313	-21,584,525	25,576,507	45,853,834	-20,277,327
6	싱가포르	23,749,882	11,303,182	12,446,700	15,011,164	7,942,129	7,069,035
7	인도	12,782,490	5,274,668	7,507,822	12,029,587	4,240,565	7,789,022
8	대만	15,077,398	15,689,769	-612,371	12,004,264	16,653,850	-4,649,586
9	멕시코	10,846,018	3,268,495	7,577,523	10,891,938	3,464,245	7,427,693
10	호주	10,282,512	20,413,019	-10,130,507	10,830,635	16,437,806	-5,607,171
11	사우디아라비아	8,287,511	36,694,536	-28,407,025	9,481,872	19,561,487	-10,079,615
12	필리핀	10,032,489	3,331,239	6,701,250	8,317,925	3,251,634	5,066,291
13	인도네시아	11,360,656	12,266,260	-905,604	7,872,404	8,850,394	-977,990
14	말레이시아	7,582,611	11,097,901	-3,515,290	7,735,293	8,609,437	-874,144
15	말셜제도	8,054,891	63,471	7,991,420	7,494,648	27,969	7,466,679
16	영국	5,782,610	7,446,596	-1,663,986	7,390,096	6,127,123	1,262,973
17	태국	7,599,142	5,344,776	2,254,366	6,361,610	4,854,350	1,507,260
18	터키	6,664,732	655,159	6,009,573	6,249,319	789,555	5,459,764
19	독일	7,570,926	21,298,750	-13,727,824	6,220,211	20,956,544	-14,736,333
20	UAE	7,211,628	16,194,256	-8,982,628	6,076,775	8,614,672	-2,537,897

V.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5.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모형은 아래 (식1-1)에서 (식1-4)와 같다.

$$\ln_Sales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ln_num_employ_i + \beta_3 \ln_age_i + \beta_4 \ln_num_mkt_i + \beta_5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dots \dots (식1-1)$$

$$\ln_num_Export_nation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ln_num_employ_i + \beta_3 \ln_age_i + \beta_4 \ln_num_mkt_i + \beta_5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1-2)$$

$$\ln_Inquiry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ln_num_employ_i + \beta_3 \ln_age_i + \beta_4 \ln_num_mkt_i + \beta_5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1-3)$$

$$\ln_export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ln_num_employ_i + \beta_3 \ln_age_i + \beta_4 \ln_num_mkt_i + \beta_5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1-4)$$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매출액, 수출국수, Inquiry 내도건수, 수출액을 사용하였고, 검증변수로 정책여부, 통제변수로서 종업원수, 기업의 업력, 해외마케팅전담인력수, 연구개발인력수가 사용되었다.

추가적으로 창업기업여부와 정책의 상호작용 효과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_Sales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policy \times start_i + \beta_3 start_i + \beta_4 \ln_num_employ_i + \beta_5 \ln_age_i + \beta_6 \ln_num_mkt_i + \beta_7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2-1)$$

$$\ln_num_Export_nation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policy \times start_i + \beta_3 start_i + \beta_4 \ln_num_employ_i + \beta_5 \ln_age_i + \beta_6 \ln_num_mkt_i + \beta_7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2-2)$$

$$\ln_Inquiry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policy \times start_i + \beta_3 start_i + \beta_4 \ln_num_employ_i + \beta_5 \ln_age_i + \beta_6 \ln_num_mkt_i + \beta_7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2-3)$$

$$\ln_export_i = \beta_0 + \beta_1 policy_i + \beta_2 policy \times start_i + \beta_3 start_i + \beta_4 \ln_num_employ_i + \beta_5 \ln_age_i + \beta_6 \ln_num_mkt_i + \beta_7 \ln_num_RD_i + \varepsilon \dots (식2-4)$$

상호작용 모형은 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정책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모형에 창업기업여부 및 정책의 상호작용 변수와 창업기업여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5.2 실증분석결과

<표 6>은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을 보여준다. 변수별로 계속기업 (start =0)과 창업기업 (start =1)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를 각각 보여주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단변량분석 (t-test와 wilcoxon test)결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변수값이 계속기업이 창업기업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속기업이 기업규모나 기업성과 등이 창업기업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거나 좋다는 의미이다. <표 7>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창업기업여부 (start)와 기업의 업력 (ln_age)간의 상관관계가 -0.799, 상시종업원수 (ln_num_employ)와 연구개발전담인력 (ln_num_RD)의 상관관계가 0.70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표 8>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정책지원이 매출액, 수출국수, Inquiry내도건수, 수출액의 4가지 모든 기업성과측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기본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본모형의 분석결과 정책지원이 수출국수, Inquiry내도건수, 수출액의 3가지 기업성과측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은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여부와 정책지원여부의 상호작용 모형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9>에서 정책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던 매출액의 경우 정책지원과 창업기업의 상호작용변수는 양(+)의 계수를 창업기업여부는 음(-)의 계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계속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음(-)의 관계계수가 도출되지만, 창업기업이 정책지원을 받게되는 경우 그 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양(+)의 계수가 0.963으로 음(-)의 계수 -0.404보다 크므로 창업기업의 순수한 정책지원효과는 계속기업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기업에 대한 수출정책효과에 관한 가설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과에 대한 가설2, 수출지원정책이 창업기업과 계속기업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가설3 모두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수출역량강화사업 대상기업의 창업중소기업과 비창업중소기업 평균값과 중간값 비교분석

Variables	Summary Statistics							
	Start=1 (n=990)			Start=0 (n=690)			Difference	
	Mean	Median	SD	Mean	Median	SD	t-stat	Wilcoxon
policy	0.500	0.500	0.500	0.500	0.500	0.500	0.00	0.00
ln_sales	5.924	6.832	2.773	8.247	8.460	1.518	-2.32***	-1.63***
ln_num_Export_nation	1.561	1.386	0.976	1.899	1.792	1.031	-0.34***	-0.41***
ln_Inquiry	2.833	3.045	1.671	3.066	3.045	1.637	-0.23**	0.00*
ln_export	3.847	4.166	2.841	5.629	6.399	2.680	-1.78***	-2.23***
ln_num_employ	2.368	2.398	0.818	3.247	3.367	0.918	-0.88***	-0.97***
ln_age	1.364	1.386	0.477	2.721	2.639	0.519	-1.36***	-1.25***
ln_num_mkt	0.943	1.099	0.409	1.076	1.099	0.419	-0.13***	0.00***
ln_num_RD	1.291	1.386	0.602	1.746	1.609	0.731	-0.45***	-0.22***

* p<0.05, ** p<0.01, *** p<0.001

<표 7>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n=1,680)

변수	(1)	(2)	(3)	(4)	(5)	(6)	(7)	(8)	(9)
(1) start	1.000								
(2) ln_sales	-0.474	1.000							
(3) ln_num_Export_nation	-0.163	0.207	1.000						
(4) ln_Inquiry	-0.069	0.105	0.620	1.000					
(5) ln_export	-0.304	0.444	0.535	0.310	1.000				
(6) ln_num_employ	-0.442	0.571	0.151	0.035	0.306	1.000			
(7) ln_age	-0.799	0.575	0.174	0.088	0.346	0.482	1.000		
(8) ln_num_mkt	-0.156	0.254	0.338	0.208	0.317	0.384	0.209	1.000	
(9) ln_num_RD	-0.312	0.397	0.045	-0.045	0.198	0.704	0.307	0.343	1.000

<표 8> 회귀분석 결과: 가설1검증(전체기업 n=1,680)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In sales	In_num_Export_nation	In_Inquiry	In_expor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ntercept	1.764 ***	0.616***	1.871 ***	0.294
policy	0.528 ***	0.234***	0.573 ***	0.591 ***
ln_num_employ	0.900 ***	0.084**	0.040	0.400***
ln_age	1.127 ***	0.141 ***	0.155 **	0.859***
ln_num_mkt	0.171	0.826***	0.948 ***	1.597***
ln_num_RD	0.032	-0.232***	-0.388 ***	-0.218
F-value	280.91	60.14	35.18	84.41
Adj R-square	0.455	0.150	0.093	0.199

* p<0.05, ** p<0.01, *** p<0.001

<표 9> 회귀분석 결과: 가설2검증(창업기업 n=990)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In sales	In_num_Export_nation	In_Inquiry	In_expor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ntercept	4.573 ***	0.928***	2.289 ***	1.811***
policy	0.133	0.196***	0.479 ***	0.328*
ln_num_employ	0.782 ***	0.016	-0.047	0.362**
ln_age	0.288 ***	0.075	0.076	0.432**
ln_num_mkt	0.102	0.805***	0.809 ***	1.607***
ln_num_RD	0.099	-0.143**	-0.223 **	-0.243
F-value	86.55	24.3	12.98	22.7
Adj R-square	0.302	0.105	0.057	0.099

* p<0.05, ** p<0.01, *** p<0.001

<표 10> 회귀분석 결과: 가설3검증(전체기업 n=1,680)

Explanatory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In sales	In_num_Export_nation	In_Inquiry	In_expor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Intercept	1.848 ***	0.916***	2.084 ***	1.084**
policy	0.133	0.196***	0.479 ***	0.328*
policy_start	0.963 ***	0.092	0.228	0.640**
start	-0.404 **	-0.237**	-0.227	-0.769***
ln_num_employ	0.902 ***	0.079*	0.037	0.389***
ln_age	1.162 ***	0.054	0.104	0.656***
ln_num_mkt	0.167	0.835***	0.954 ***	1.619***
ln_num_RD	0.036	-0.240***	-0.393 ***	-0.236
F-value	208.41	44.07	25.55	62.13
Adj R-square	0.464	0.152	0.093	0.203

* p<0.05, ** p<0.01, *** p<0.001

VI. 결론

창업중소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수출집약도,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의 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공개기업이 아닌 경우 객관적 지표가 포함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목표시장의 크기 또는 회계기준 등의 이유로 절대적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단일차원의 성과측정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위와 같은 다차원 측정이 도입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창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은 수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점차 통합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에 있어 수출중소기업에게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수출활동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의 경영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에 대한 근본적 동력으로서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창업이후 빠른 국제화를 추진하는 창업기업의 경우에 있어 기술역량은 일반 수출기업보다 수출집약도와 수출수익성에 더욱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벤처기업일수록 핵심기술의 보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창업초기부터 해외시장에서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역량과 해외마케팅조직의 상호작용은 수출성장에 있어 창업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마케팅 조직은 신규시장 또는 목표시장의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내에서 활용 하고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만들어내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외 마케팅조직은 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외마케팅 조직이 연구개발역량과 동시에 활용될 경우에 해외시장에서 새롭게 습득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새로운 가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이 기존의 연구개발역량의 활용과 새로운 기술혁신 등의 출현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마케팅 조직은 조직의 개방적인 문화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서 통용되던 관습적 사고를 혁신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일반수출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에 있어 연구개발역량과 해외마케팅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수출성장에 차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빠른 국제화를 추진하는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시장의 욕구와 변화를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해외마케팅 조직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국내 창업중소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있어 조직의 학습지향적인 문화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이다. 불확실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이외에도 현지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시장 정보는 결국 핵심기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해외시장 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자라면 기술적 변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정보의 소화흡수역량 (Absorptive Capacity)에 도움을 주는 학습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은 창업 이후에 빠른 국제화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즉, 기업의 역사가 짧은 경우 조직 내부적으로 관성화된 틀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지향적인 조직문화가 결합하게 되면 더욱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변화에 대해서도 더욱 능동적 대응이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빠른 국제화를 추진하는 창업기업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보유역량을 단일역량 차원과 상호작용 차원에서 동시에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직후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수출성과와 기업역량간의 관계에 대해 일반 수출기업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므로, 기존 연구의 표본선정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연구개발역량을 동반한 해외마케팅 조직의 상호작용 효과가 국내 창업중소기업에게 있어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개발과 해외마케팅 관점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연구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

VII. 향후 과제

본 연구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창업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제도와 기업규모, 업력, 해외마케팅조직과 기술개발역량 그리고 수출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의 설명과 함께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기지역 다음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울산, 충남, 서울 등, 또는 가능한 전국의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 기업들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변수들 역시 수출중소기업 상의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변수를 찾아낸다면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본다.

REFERENCE

- 김영일(2007), 수출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관세학회지*, 8(4), 1-32.
- 김인권(2010), *기업유형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문희철·오현정(2009),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31(2), 295-316
- 신진오·하규수(2016), 코스닥 상장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1), 85-95
- 신현우(2010),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제도 활용도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세준(2010),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2(4), 193-211.
- 이성봉(2007), 중소기업 해외 시장진출 지원: 필요와 지원간 차이 분석, *국제경영연구*, 18(3), 1-26.
- 정헌배(2015), 주류도매업체의 CSR활동과 경영성과 관계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6), 81-87
- 조연성(2008), *한국 국제 신 벤처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ho, Y. S.(200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xport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New Venture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eo-Kang University
- Jeong, H. B.(2015),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Liquor Licensed Wholesal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1-87
- Kedia, B. L. & Chhokar. J.(1986), Factors Inhibiting Export Performance of Firms: An Empirical Investigation,

-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26(4), 18-33
- Kim, I. K.(2010), *A Study on Export Assistance Program at the Korean Small-Medium Exporters*, Doctoral Dissertation, Jeon-Ju University
- Kim, Y. I.(2007), A Study on Export Assistance Program Awareness and Usage of Korean Small-Medium Exporter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8(4), 321-352
- Knight, G. A. & Cavusgil, S. T.(2004), Innovati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born-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2), 124-141
- Lee, M. G., Park, J. P. & Park, W. J.(2015),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R&D Investment in the IT Firms: IT Hardware Firms vs. IT Software Firm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5(1), 61-81.
- Lee, S. B.(2007), The Korean Government Export Promotion for Manufacturing SEMs: A Gap Analysis, *Th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8(3), 1-26
- Moon, H. C. & Oh, H. J.(2009), The Influence of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Export Support Programs on Export Performance of Korean SME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2), 295-316
- Rondinelli, D. A. & Burpitt W. J.(2000), Do government incentives attract and retain international investment? A study of foreign-owned firms in North Carolina, *Policy sciences*, 33(2), 181-205
- Shin, H. W.(2010),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al Program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 Shin, J. O. & Ha, G. S.(2016), Study on VC Investment Improve Growth and Productivity of VC: Backed firms Focused on Kosdaq Listed Bio Venture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1), 85-95
- Yoo, S. J.(2010), A Study on the Measures for Export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2(4), 193-311

A study on the Effect of Export Support Policy to Export Performance: Focusing on Small-Medium Start-up Enterprises in Gyeonggi Area

Lee, In Seong*
Park, Woo 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marketing program (hereunder refer to as 'program') among the programs to support export cond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speciall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increase in export for small - medium enterprises of less than 7 years (base on Item 2 of Article 2 of Act on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bove, export result for 1,690 companies which participated through Gyeonggi Distric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2014 and 2015 were selected among the 843 companies that applied to the program through 12 local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rea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export performance of 1,690 companies is conducted in this study. In this study, main variables were selected by investigating advanced researches related to export performance of company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And also, samples have been collected from companies in Gyeonggi area for this research since the companies in Gyeonggi area have been ranked as the 1s annually and the companies in Gyeonggi area employ the highest number of people per industry.

As a result of actual proof analysis, Firstly, it was suggested that the program influences positively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small -medium enterprises. Secondly, the program shows that the program influenced positively on the export performance of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Lastly, it suggested that the program influenced more positively on the small - medium enterprises with less than 7years than normal small - medium enterprises.

By adding the export performances of companies in Ulsan area of which the scale of import and export is the 2nd largest and companies in Seoul area, that participated in the program during the same period, I would like to conduct follow- up research if the significant results are obtained or not.

Keywords : Export, Start-up, Export Supporting Policy,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SMEs)

* First Author, Masters Student, Graduate School of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Yonsei University, high7647@nate.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overnment and Business, Yonsei University, hawkmaint@yonsei.ac.kr